



경제 돋보기

광주 제조업 대추락 왜

실물 공포...車·전자 동반 부진

광주 제조업의 추락이 예상되지 않다. 호남지방통계청이 2일 발표한 1월 중 광주·전남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광주지역 산업생산지수는 72.9로 전년 동월대비 무려 35.9%가 감소하는 등 지난해 11월 이후 3개월 연속 산업생산지수가 수직 하강을 하면서 광주지역 제조업이 끝을 알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산업활동 3개월째 하락

광주 제조업의 추락은 국내의 경기 부진에 따른 가이자동차와 LG이노텍, 금호타이어 등의 생산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다. 우선 광주지역 제조업 생산의 30%를 담당하고 있는 가이자동차의 내수와 수출 동반 침체에 따른 가동 중단 영향이 컸다. 가이자동차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2주간 생산을 해온 제2공장의 가동률도 크게 떨어졌다. 이로 인해 광주지역 자동차 제조업의 생산지수는 45.4%나 급감했다.

LG이노텍 등이 생산하고 있는 휴대폰용 카메라 모듈 등 전자부품·음향통신부품 생산도 수출 부진으로 57.2%나 하락했다. 대형공장

고·커넥터·전자레이저·소형전동기 등 전기장비 제조업도 24.4%의 감소율을 보였다.

광주 지역의 산업생산지수는 지난해 10월 130.8로 정점에 오른 이후 11월 115.3, 12월 101.1로 추락한 데 이어 1월에는 72.9로 무려 30.2포인트가 빠졌다. 금융위기가 실물 경제 침체로 급격히 전이됐음을 보여 주는 수치다.

문제는 이런 제조업 침체의 바닥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이자동차 광주공장의 경우 지난해 제2공장의

아간작업을 중단했고 3, 4월에는 2차체에 걸친 장기 가동중단에 들어간다. 엔진공장이 지난해 말부터 3개월째 공장이 폐쇄됐다.

경기 침체, 끝 안보여

글로벌 시장의 자동차 판매부진은 금호타이어에도 악영향을 미쳐 광주와 곡성공장이 지난해 21일~24일까지 4일간 가동을 중단했다. 이로 인해 이들 대기업의 협력업체가 밀집한 평동·하남산단도 가동

률이 뚝 떨어지는 등 지역경제에 감산의 공포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불황이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아 상황이 어떻게 될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하남산단내 가이자동차 협력업체 한 대표는 "그동안 가이자동차의 감산으로 인한 잦은 휴무로 인해 공장 가동률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 형편이다"며 "또다시 한 달이상 휴무가 예정돼 있어 막막할 뿐이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스포티지를 생산하는 가이자동차 광주2공장 생산 라인이 멈추게 됨에 따라 생산량 차질이 예상되는 가운데 2일 텅빈 가이자동차 광주공장 출하장이 가이자동차의 어려움을 대변하고 있다. /최한혜기자 choi@kwangju.co.kr

썩썩한 무역수지 흑자

2월 원유 등 수입 감소로 33억달러 달해

2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이상 감소하고도 무역수지가 33억 달러에 육박하는 흑자를 기록했다.

선박 수출의 대폭 증가와 함께 원유 등 수입이 3년 반만에 최저치를 기록한데 힘입은 것이다.

2월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수출은 258억4천800만 달러, 수입은 225억5천300만 달러로 무역수지가 2007년 6월(34억9천만 달러) 이후 가장 큰 32억9천500만 달러의 흑자를

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2월 수출은 지난해 2월보다 17.1% 감소했지만 수입이 30.9% 급감하면서 지난해 2월(220억 달러)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 대규모 흑자의 원인이었다.

1월과 2월을 합한 무역수지도 6천100만 달러 적자로, 적자폭이 크게 줄었다.

수출 감소율의 하락과 무역수지 개선에는 선박류 수출이 크게 기여했다. 2월 선박류 수출규모는 42억3천

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7.4%나 급증했다.

그러나 여타 주력 품목의 수출은 여전히 감소세를 면치 못해 철강이 10% 감소한 것을 필두로, 자동차와 가전 등 각각 33%, 석유화학과 석유제품이 각각 31%와 36%의 감소율을 보였고 반도체 수출액 감소는 40%에 달했다.

내수와 수출수요가 모두 부진하고 설비투자까지 위축되면서 발생 가능한 급격한 감소도 무역수지 개선의 주된 요인이었다.

/연합뉴스



기아 신형 쏘울 시판

기아차는 연비 효율을 높이고 안전 및 편의사항을 추가한 2009년형 쏘울을 시판한다고 2일 밝혔다.

2009년형 쏘울 가솔린 1.6 자동변속기 모델의 연비는 기존 13.8km/l보다 8.7% 향상된 15.0km/l로, 1등급 연비를 실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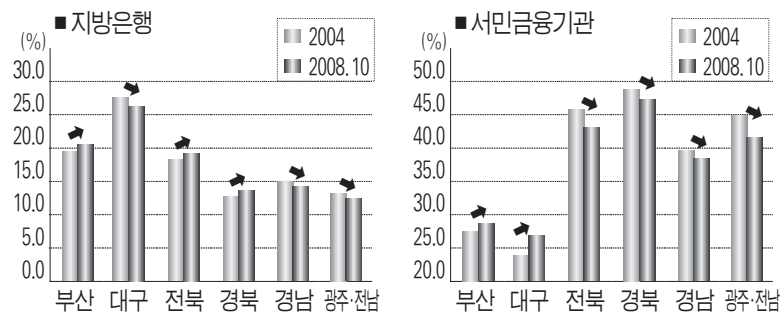
2009년형 쏘울의 가격은 ▲가솔린 1.6 모델 1천398만원~1천795만원 ▲디젤 1.6 모델 1천625만원~2천42만원 등이다. /최재호기자 lion@

지역 금융기관 갈수록 '위축'

여·수신 점유율 각각 15%, 12% 그쳐

광주·전남 중소기업·자영업자 대출도 미미

지역별 지방은행 및 서민 금융기관의 수신 점유율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이 신용도가 취약한 중소기업 등이 직면한 신용경색을 완화해주는 본연의 역할에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2일 '광주전남 지역금융기관의 행태분석' 자료를 통해 "전국 규모 은행은 신용리스크나 담보자산 가치 측정 등을 통한 거래금융에 치중하는 데 반해 지

방은행과 상호저축은행·신협·새마을금고 등 지역금융기관은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에 대한 자금 공급을 통해 지역경제의 신용경색을 완화하는 기능을 한다"며 "그러나 지역금융기관은 이 역할에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총여신과 수신 점유율의 경우 전국은행은 지난해 2007년 49.4%,

34.2%, 2008년 49.2%, 36.7%를 각각 차지한 데 반해 지역 금융기관은 2007년 15.5%, 13.4%, 2008년 15.6%, 12.5% 등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에대올의 경우 지역 지방은행은 지난해 1998년만 해도 전국 평균보다 낮았지만 10년만에 무려 38.8%포인트가 상승, 부산(51.7%포인트 상승)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큰 상승세를 기록했다"며 지방은행의 지난해 기대를 상승을 경계했다.

지방은행은 그러나 중소기업 대출이 1998년 1조3천억원에서 지난해에는 4조6천억원으로 크게 늘고 기업대출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7년 23.5%에서 2008년에는 24.1%로 소폭 상승하는 등 나름대로 역할을 한 것으로 풀이됐다.

반면 상호저축은행·신협·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의 경우 전체 가계대출에서의 점유율은 53.6%에 달하지만 기업대출 점유율은 13.5%로 낮은 수준을 보여 기업대출에는 상대적으로 인색함을 나타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광주은행 새내기 입학식

광주은행 신입 직원 22명이 2일 본점에서 '입학식'을 마친 후 송기진 광주은행장 등 임원들과 새 출발을 다짐하며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신입 직원들은 3개월동안 창구업무와 영업점 현장교육 등 다양한 과정의 연수를 마쳤다. (광주은행 제공)

수완 택지 재산권 행사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

2일부터 수완지구 모든 택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됐다.

한국토지공사 광주전남본부는 2일 "지난 2004년 10월 착공한 수완 택지 개발 조성사업이 착공 5년 만인 지난해 말 완료된 뒤 중전 4천필지에 대한 지적 공부를 폐쇄하고 새로 조성된 2천 필지에 대한 지적 공부 정리 절차를 마무리해 소유권 이전 등기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지희기자 dok2000@

'삼겹살데이' 할인판매 경쟁

3일 '삼겹살 데이'를 맞아 지역 유통업체들이 대대적인 삼겹살 판촉행사를 벌이고 있다.

2일 유통업체에 따르면 광주신세계 이마트는 4일까지 '삼겹살 대축제'를 열고 삼겹살 및 관련 상품을 30~50%가량 할인판매한다.

삼겹살 100g을 1천170원에, 지난주까지 3천960원이었던 새송이 버섯(2봉)도 2천660원에 판매한다.

이밖에 이마트 인터넷 쇼핑몰(www.emart.co.kr)을 통해 추천을 통해 1봉(10봉)에 국산 삼겹살 125인분, 또는 신세계 상품권 50만 원을, 2봉(30봉)에게는 국산 삼겹살 25인분 또는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을 각각 증정하는 행사도 마련했다.

롯데마트 상무점도 4일까지 삼겹살 100g을 950원에 판매하며 삼

겹살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예저적상추'(1봉·680원)와 간마늘(1봉·2천580원) 등도 할인된 가격에 판다.

홈플러스 동광주점은 '통돼지 한마리 타임'세일 행사를 열어 오후 3시부터 5시에 국내산 암퇘지 한마리를 부위에 상관없이 100g당 880원(1인 2kg 한정)에 선착순으로 판매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도 3일 하루 동안 '삼겹살 데이'를 맞아 삼겹살 100g을 55% 할인해 990원에 판매한다. /이은미기자 emlee@

Advertisement for Dongbu Gosihakwon featuring public servant exam preparation, including dates for 2008 Jeollanam-do exams and various educational events.

Advertisement for Asset Korea Real Estate featuring property listings with details on location, price, and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branches.